

농어촌공사 칠곡지사, 현장 중심 안전관리 강화

✎ 김철희 기자 | Ⓞ 승인 2026.05.20 14:32

안전협의체 회의·안전지킴이 임명식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모습. 사진=칠곡지사 제공

[칠곡(경북)=데일리한국 김철희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경북 칠곡지사는 19일 덕산지구 배수개선사업 현장사무실에서 안전보건협의체 회의와 'KSG안전지킴이' 임명식을 열며 현장 중심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이번 회의는 기존 사무실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실제 사업 현장에서 진행돼 보다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현장 위험요인을 직접 점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또 이날 임명된 안전지킴이는 향후 자율적인 안전관리 활동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앞장설 예정이다.

덕산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총사업비 약 16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칠곡군 북삼읍과 약목면 일대 농경지 침수 피해 예방과 안정적인 농업용수 기반 구축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김철희 기자 chk1500@naver.com